

‘탄핵 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재판 영향 미칠까

사건 전반 관리·결정문 초안 작성하고 쟁점 정리·검토하기도

보수 성향 강한 인사...일각에선 “재판 속도·방향에 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변론 뿐 아니라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논의에 들어가는 등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심판 주심(主審)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되면서 심판 결과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주심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다.

전날 헌재는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진행했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12·3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또 연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기도 한다.

정 재판관은 이미시(54·26기)재판관이 함께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보수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하지 못한 진행 또는 심리 지연 등에 대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사전단계인 소부사건에서 주심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 사안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10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으로 TF가 꾸려졌다.

또 재판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평의는 주심이 담당하지만 변론이 열리는 심리 진행은 재판장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번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7일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에 변론 기일을 지정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동일한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 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일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가운데)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했다. /연합뉴스

국힘, 국회 뭉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시간끌기’

헌재 ‘6인 체제’ 만장일치 안 되면 탄핵 결정 미뤄질 가능성 임명동의안 미루고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능” 주장까지

여야가 국회 추천 뭉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수싸움에 돌입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도 다소 늦어져 ‘조기 대선’ 일정도 조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일부 겹치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 유불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고, 국민의힘 계열 후폭풍을 피해갈 시간을 벌어야 하기에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귀일’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밝히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귀일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